

파킨슨병

파킨슨병은 손 떨림과 함께 행동이 느려지고 몸이 굳어지며, 보행이 느려지고 보폭이 짧아지며 자세가 불안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퇴행성 뇌질환이다.

파킨슨병의 가장 초기 증상은 비특이적으로 전신 위약감이나 피로감, 권태감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는 병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진단을 내리기도 어렵다. 좀 더 특징적인 증상들로는 휴식 상태에서의 손 떨림이 가장 흔하며, 대화 시 발음 혹은 억양의 변화, 누웠을 때 혹은 보행 중 방향 바꾸기가 어렵다거나 걸을 때 팔의 흔들림이 줄어드는 증상들이 있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걸음을 시작할 때 어려움을 느끼거나 의자에 앉거나 일어서기가 어렵고 글씨체가 작아진다고든가 우울증, 침 흘리는 증상 등이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파킨슨병의 증상은 크게 일차적 증상과 이차적 증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차적 증상은 경직, 떨림, 몸의 움직임이 느리거나 줄어들고, 몸의 균형을 잡기 어렵거나 보행 장애 등의 증상들로서 흑색질의 신경세포 파괴로 생기는 직접적인 현상이다. 이차적 증상은 일차적 증상으로부터 파생되어 생기거나 흑색질 외의 다른 신경계의 침범에 의하여 생기는 증상들을 지칭한다.

① 일차적 증상 ①

1 경직

근육의 긴장도가 증가하여 마치 관절이 굳은 것처럼 잘 움직여지지 않는 증상으로 종종 떨림과 같이 나타나고, 검사자가 관절을 움직일 때 마치 톱니바퀴를 돌리는 느낌 같다 하여 차륜상 경직이라고도 불리는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2 떨림

파킨슨병 환자의 약 75퍼센트에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손에서 가장 흔하며 때론 발에서도 나타나고 머리, 목, 얼굴, 근육, 턱에서도 있을 수 있다. 보통 떨림은 움직이지 않고 휴식 상태일 때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일부 환자에서는 반대로 어떤 자세를 유지하거나 움직이는 동안 더 심해지는 일도 있고, 이럴 때는 소뇌 등의 다른 신경계의 병변을 의심할 수 있다.

3 서동증(움직임이 느려짐)

서동증은 파킨슨병에서 가장 심한 운동기능 장애를 가져오는 증상이다. 모든 운동을 시작하고자 할 때 시간이 지연되고 느려지며, 움직임 자체의 양도 줄어들며 진행 중인 운동이 갑자기 멈추어질 수도 있다. 또한 이 때문에 몸의 균형을 유지하거나 보행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

4 균형 유지 장애

몸의 평형을 유지하는 데 장애가 있는 증상으로 특히 걷다가 방향을 바꾸거나 서 있는 환자를 밀 때 잘 생긴다. 따라서 균형 유지 장애 때문에 파킨슨병 환자들이 자주 넘어지고 이 때문에 외상을 입는 일도 있다.

5 보행 장애

보행 장애는 여러 가지 양상을 보일 수 있는데 보행을 시작할 때 장애를 보인다든가 팔의 흔들림이 줄어들며, 짧은 보폭의 종종걸음으로 앞으로 쓰러질 듯한 걸음걸이,



방향 전환에 어려움이 있거나 보행 도중 갑자기 얼어버린 듯 걸을 수 없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앞으로 쓰러질 듯이 종종걸음을 하면서도 걸음을 멈추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때때로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다고 비유되기도 한다.

❶ 이차적 증상 ❶

1 언어 장애

언어 문제는 파킨슨병 환자들에게서 아주 흔한 증상이다. 단지 목소리가 잦아들거나 처음에는 크게 시작했던 문장이 끝에선 목소리가 줄어드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병이 진행되면 심하게 말을 더듬게 되는데 이것은 보행 시에 보이는 걸음을 시작하기 어려운 증상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된다.

2 연하 장애

연하 장애는 파킨슨병 환자들에게서는 병의 후반기에 발생하는 문제다. 연하는 여러 근육이 작용하는 매우 복잡한 과정으로서 혀나 목의 근육들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현상이 생기게 되면 음식을 목 뒤로 넘겨 상부 식도로 넘기는 작용이 지연되어 음식들이 목에 걸리게 되고 환자들은 음식물이 목에 들러붙는다고 호소하게 된다.

3 변비와 구토

파킨슨병 환자들은 사지의 근육이 느려지듯이 장관 운동도 느려져서 변비가 생길 수 있으며 항파킨슨병 제제의 부작용으로도 생길 수 있다. 오심과 구토는 특히 항파킨슨 제제 사용의 초기 부작용으로 흔히 나타나며 치료받지 않은 환자에게도 간혹 관찰될 수 있다.

4 배뇨 장애

빈뇨(소변이 배변 시 충분히 나오지 않아 배변 횟수가 잦아지는 것), 긴급뇨(방광이 꽉 차지도 않았는데 당장 소

변을 보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증상은 파킨슨병 환자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다. 방광을 조절하는 배뇨 반사 경로에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환자들은 특히 밤에 심한 불편을 겪게 된다. 배뇨 시작이 지연되는 느낌,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것, 긴급뇨 발생 시 화장실에 도착하지 못하여 생기는 요실금 등도 생길 수 있다. 비뇨기계 감염, 전립선의 문제, 부인과 문제가 있으면 배뇨 장애를 더욱 심하게 만들 수 있다.

5 우울증과 불안감

우울증과 불안감은 많은 파킨슨병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발한, 과호흡, 빈맥, 창백, 죽을 것 같은 느낌으로 나타나게 된다. 우울증은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동기를 박탈하므로 환자는 온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된다. 우울증은 병에 대한 환자의 정서적인 반응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원인은 기분 조절에 관여하는 신경전달 물질인 에피네프린, 세로토닌 및 도파민 등의 결핍에서 비롯된다. 대체로 항파킨슨병 약제에 어느 정도 반응을 보인다.

6 수면 장애

불면증은 파킨슨병 환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문제이다. 잠에 빠져드는 것보다는 잠을 유지하는 문제가 힘든 경우가 더 많아서 밤새 잠이 깨어 뒤척이게 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밤에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없어서 낮에 조는 일이 많아 정상적인 수면주기가 완전히 뒤집힌다는 것이다.

7 기억력 장애

기억, 사고, 단어 찾기 등의 장애는 특히 고령의 환자와 병의 후반기에 관찰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노인성 치매 환자들보다 비교적 덜한 정도로 나타난다. 병이 진행하면 감각의 혼란을 가져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것이 느껴지는 증상, 즉 환영이 생길 수 있으며 주로 환시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

(출처 : 부산백병원 파킨슨병센터)